비숍데일 리폼드처치 주일 오전설교 번역요약본 13/10/24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설교자: 마티아스 샤트 (Matthias Schat) [골로새서 1:21-23]

21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3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군이 되었노라

오늘 설교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복음의 진리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1. 우리의 과거를 상기시켜주는 것

바울은 골로새인들에게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상기시켜 줌으로써 믿음에 계속 붙어있으라는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골로새인들과 또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멀어진 자들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낯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적이며 우리의 정신과 행동 모두에서 그 분을 대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런 식으로 평가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부재한 우리의 상태에 대해 솔직히 직면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2.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

바울은 한때/지금이라는 패러다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방금 우리가 하나님께 한때 얼마나 적대적이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바울이 22절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 분께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소외와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이상 외인이 되지 않고 그 분의 자녀가 되게 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죄를 돌리는 일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흠결 없이 보이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화해한 자녀로서 옛 사고방식과 행동들이 우리의 새 삶에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믿음의 삶을 지속하라는 부르심

하나님과 화목해짐에 관한 이 놀라운 소식은 우리의 삶을 능히 변화시킵니다. 바울은 오늘 설교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보십시오. 이제 당신에게 주어진 것을 살아내십시오.”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라고 격려합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기초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온라인이나 소셜 미디어 피드에서 유행하는 최신 이론, 철학 또는 세계관을 위해 우리 삶의 어떤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진리를 여러분은 붙잡고 계십니까? 당신은 참된 믿음의 삶을 계속하고 살고 계십니까? 복음의 놀라운 소식은 확실히 우리가 붙잡을 가치가 있는 진리입니다!